〈 수 정 공 지 〉

아시아교육연구 20권 3호에 투고된 본 논문은 2019년 9월 30일 발간된 이후, 2020년 3월 저자 측에서 소속 표기 및 영문 성명 표기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였고 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된 연구윤리 심의위원회의 검토와 내규(연구윤리규정 제 9조)에 의거하여 해당 사항을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p. 831(해당 논문 첫 페이지)

1. 공저자 소속 수정: (수정 전)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 (수정 후) 서울대학교 교수
2. 괄호 수정: (수정 전) 고혜정((高惠貞) → (수정 후) 고혜정(高惠貞)
3. 국문 초록 보완: 6~8행, 9~10행

p. 852(해당 논문 마지막 페이지)

4. 공저자 소속 수정: (수정 전) Koh, Heyjung → (수정 후) Koh, Hyejung

해당 논문을 이전에 열람하시거나 인용하신 경우, 수정사항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아시아교육연구 편집위원회 -

아시아교육연구 20권 3호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19, Vol. 20, No. 3, pp. 831-852.
https://doi.org/10.15753/aje.2019.09.20.3.831

장애학생 상담지원에 대한 연구동향과 지원방안*

김희은(金希垠)**
고혜정(高惠貞)***
김동일(金東一)****
최수미(崔秀美)*****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장애학생 상담지원에 관한 동향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7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46편의 연구를 분석하였다. 전반적인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 대상, 연구 유형, 상담프로그램 설계 및 결과, 상담 프로그램 내용에 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구 대상은 초등학생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장애유형은 청각장애와 정서행동장애가 가장 많았다. 연구설계는 조사연구가 가장 많이 실시되었으며, 연구주제로 상담자 및 상담에 대한 인식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46편의 분석논문 중에서 15편이 실제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한 연구였다. 15편 논문 분석 결과, 실제 상담을 제공한 연구는 최근 3년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상담의 형태는 개별상담보다 집단상담 형태가 많았다. 또한 연구설계는 양적연구, 혼합연구, 단일대상연구, 질적연구 순서로 많이 이루어졌으며, 상담 회기 수는 1~10회기 이하가, 중재 시간은 91분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측정도구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학생 상담지원 연구 동향과 지원방향에 대한 논의와 향후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 장애학생, 상담지원, 연구동향, 부모상담, 교사상담, 진로상담, 지원방안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3A2066303). 이 논문은 한국교육심리학회 2019년 1차 학술대회에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제1저자, 서울대학교 특수교육전공 박사과정, aladdin008@snu.ac.kr
*** 교신저자, 위덕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hjkoh@uu.ac.kr
**** 서울대학교 교수
***** 건국대학교 교수

Ⅰ. 서론

장애학생들은 다양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적절한 상담이 학교생활 만족 및 긍정적인 자아형성에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장애학생들은 낮은 자아개념, 낮은 참여수준, 우울, 긍정적 상호작용 기술 결여 등의 어려움을 나타낸다(송현종, 2008; Bowen, 1998). 특히 최근 통합교육의 확산에 따라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학급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도 기준으로 이전 해인 2017년에 비해 351개 특수학급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학급에서 생활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1.4%를 차지하고 있다(교육부, 2018). 일반학생과 함께 있는 통합 환경에서 심리적 고립감, 낮은 자존감등이 더욱 낮아 질 수 있다(서유진, 2010; Vaughn, Elbaum, Boardman, 2001). 일반학교의 통합교실에서 생활하는 장애학생들은 비장애학생들과의 비교, 학급 내 고립감 등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우울, 불안, 부정적인 자아개념 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서유진, 2010). 장애학생들의 심리, 사회적 문제들은 학교생활적응을 저해하며, 이후 성인기 진로선택 및 직업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송현종, 2008). 장애학생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여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 학교에서 수용적인 환경에서 지지와 격려를 받고자 하며,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에 전문가의 적절한 개입과 지원이 강조되어진다(송현종, 2008; Baker, 1992).

국외의 경우 미국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IDEA)과 미국학교상담학회(American School Counselor Association: ASCA)에서는 장애학생의 상담에 대한 권리와 이들에 대한 상담지원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서 특수교육관련 서비스의 한 영역으로서 '상담지원'이 제시되고 있고, 동법 제28조에서 가족상담, 양육상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김원호, 이주영, 2018). 때문에 장애학생들은 상담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장애학생 상담은 특수교사뿐만 아니라 상담교사에게도 중요한 역할임을 법률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전의 상담교사의 역할은 일반학생들에게 포커스가 있다면, 최근에는 일반학생들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들의 정서, 행동, 학업문제를 파악하고 영역에 따른 적절한 상담과 지원 제공을 강조한다(서유진, 2010). 김병석(2015)은 '상담'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심리적, 사회적, 영적 서비스 활동이라고 하였다. 상담과정에서 내담자는 공감과, 존중, 이해를 경험함으로써 감정을 발산할 수 있고, 자기이해를 함으로써 타인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과 방식을 존중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내담자가 삶에 대하여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게 하고 공동체 삶에 참여할 수 있게 돕는다(김계현, 김동일, 김병석 외, 2010). 때문에 장애학생은 보다 나은 학교적응과 건강한 자아형성을 위하여 전문상담교사, 특수교사 등에게 자신에게 필요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

특히 장애학생 상담은 부모, 전문상담교사, 담임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의 협력이 필요하다(김영미, 박재국, 이선민, 2009). 장애학생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를 대상으로 학령

기 학교적응문제와 같은 교육상담, 또래관계 문제와 같은 사회성 및 정서관련 상담, 고등학교의 경우 진로 상담 등의 상담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전문상담교사는 교육청, Wee센터, 중·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있지만 일반학생에 비해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는 낮으며, 장애학생상담을 특수교사의 업무로 간주하고 경험부족, 업무과다 등의 이유로 장애학생들이 필요한 상담을 실제적으로 제공되는데 어려움이 있다(박성현, 장우영, 황순영, 2013, 재인용; 송현종, 2008). 특수교사 또한 업무과다로 인한 시간부족 등의 요인이 인해 학교에서의 장애학생을 위한 활발한 상담을 저해한다(김영미, 박재국, 이선민, 2009). 때문에 양질의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상담에 대한 연구와 전문상담교사들의 이해를 돕는 실제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서 장애학생관련 상담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뿐더러 그 수도 적은 편이다.

현재까지 실시된 장애학생 대상 상담연구는 제한적이다. 국외연구로는 Foley-Nicpon 외(2012)이 주요 학술지 5곳에서 20년간 게재된 장애관련 상담논문 55편수를 분석한 결과, 상담학술지에 장애상담주제의 논문이 꾸준히 증가하지만 여전히 적은 편수이며, 장애학생상담지원에 관한 연구가 필요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연구로는 김민형 외(2015)이 특수교육대상에 속한 장애아를 대상으로 상담을 수행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36편의 연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지적장애 유형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고, 상담유형별 연구설계는 실험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대인관계능력 신장을 위한 상담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경현과 이지연(2013)은 2002년부터 2012년에 걸쳐 11년 동안 국내 학술지에 수록된 장애상담 연구를 분석하여 연구대상의 장애유형은 발달장애가 가장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감각장애는 낮은 비중을 보였고, 상호작용에 대한 주제의 연구가 가장 높은 빈도로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서유진(2010)은 29편의 국내 학술지에 실린 장애학생 상담연구논문을 장애유영별로 분류하여 연구방법, 상담이론, 상담기간, 결과 등의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장애학생 상담연구는 자폐성 장애학생 대상, 중학교 학생 대상으로 가장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단일대상연구가 집단연구보다 더 많이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담 관련연구는 미술치료와 음악치료 등의 예술치료적인 상담을 포함하고 있으며, 때문에 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인 내담자와의 담화에 집중하는 형태의 상담영역만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치료의 개념이 아닌 지원으로서 상담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상담'은 한자 相談 그대로 서로 주고받는 담화에 초점을 맞추며 이는 내담자를 치료대상이 아닌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간주(김동일 외, 2002)하고자 한다. 이러한 형태는 주로 학교상담사가 실시하는 상담 방식이며, 장애학생들이 학교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기도 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장애학생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관련 상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부모, 교사, 또래 등을 포함

하여, 이와 관련한 협력네트워크 주체들이 필요한 상담지원 동향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향후 지원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학생 상담지원관련 주제 논문들의 연구대상은 어떠한가?

-참여자의 년도별 동향은 어떠한가?

-장애학생 참여자일 경우 장애유형과 학년의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장애학생 상담지원관련 주제 논문들의 연구설계 동향은 어떠한가?

셋째, 장애학생 상담지원관련 주제 논문들의 연구주제 동향은 어떠한가?

넷째, 장애학생 상담지원 논문 중에 상담프로그램을 직접 제공한 논문들의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문헌검색 및 선정과정

1) 분석 대상 논문 검색

본 연구는 장애학생 상담연구의 동향을 알아보고자 국내의 장애학생상담에 대한 논문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문헌검색을 위해 학술저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국회도서관, 누리미디어 DBPIA, 한국학술정보(주), 교보문고 스콜라, 학슬교육원을 이용하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검색하였다. 검색키워드는 ‘상담’을 주요키워드로 설정하여 ‘장애’, ‘특수’, ‘부모상담’, ‘학교상담’, ‘진로상담’ 등을 이어 붙이는 방법으로 논문을 검색하였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된 2007년부터 2018년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검색하였으며, 학위논문은 학술지 중복게재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외하였다. 검색 논문의 질적인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등재지 후보에 게재된 논문을 검색하였으며, 누락된 논문이 없도록 학회지를 년도별로 직접 검색하였다. 예를 들어 국내 주요 특수교육 학회지인 특수교육학연구, 유아특수교육연구, 지적장애연구, 시각장애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학습장애연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의 년도별 출판물을 직접 검색하여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후 장애학생 상담과 관련된 선행문헌분석연구(서유진, 2010; 서유진, 2012; 이경현, 이지현, 2013)에 분석대상으로 포함된 논문 및 참고문헌을 살펴보고 누락된 논문을 추가하여 1차적으로 총 58편의 장애학생상담관련 논문이 검색되었다.

2) 분석대상 논문 선정 기준

1차적으로 선정된 논문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종 분석 논문을 선정하였다.

첫째, 연구변인에 ‘상담’을 필수 키워드로 포함하고 있는 논문을 선정하였고, 연구변인에 ‘치료’가 키워드로 제시된 논문을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과 같은 심리치료가 포함된 논문은 제외하였다. 이는 우울, 불안과 같은 문제는 심리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인간관계, 학업, 진로문제 등은 상담의 대상이기 때문에(김계현, 김창대, 권경인 외, 2011), 본 연구에서는 장애학생 상담연구의 전반적인 동향을 보고자 ‘상담’만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으로 제한하여 수집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에 포함된 장애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장애유아, 초등, 중등·고등 장애학생과 장애인대학생에 한정하였다. 예를 들어,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활상담 관련 논문은 제외되었다. 또한 상담의 주체가 장애학생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담당교사(특수, 일반교사), 상담원, 같은 반의 또래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장애학생들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담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연구는 양적연구, 질적연구, 양적·질적 혼합 연구를 포함하였다. 양적연구는 조사연구, 집단연구, 단일대상연구를 적용한 실험연구이며(성태제, 2017), 표본의 대표성, 검사, 도구사용, 연구설계 등에 대한 타당성이 명확히 제시되고 연구결과에 대한 충분한 통계적 정보가 포함되어야한다. 질적연구의 경우 사례연구, 현상학연구, 내러티브연구 등을 적용하였으며, 면담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술과 분석틀에 대한 타당성,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가 제시된 연구를 포함하였다.

넷째, 상담이 제공되었을 경우, 상담횟수, 시간, 상담내용이 포함된 연구를 선정하였다. 위의 기준을 통해 검색된 59편 중 46편의 논문이 본 연구의 분석 논문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분석대상 논문의 출간 학술지별 연도별 분류는 〈표 1〉과 같다.

〈표 1〉 분석 대상 논문의 연도/출간 학술지별 발행 현황

학회지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총계
특수교육학연구				1									1
유아특수교육연구					1								1
지적장애연구						1	1						2
정서·행동장애연구								1	1	1	1	2	6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1				1	2
특수교육교과연구				1									1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1	1								1	1	4
특수아동교육연구				1		2	2				1		6
재활심리연구					1	1					1		3
특수교육연구					1								1

상담학연구	1	1		1		1			1			1	6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									1
기타학회			1	1	1	2	2		1	1		3	12
총계	1	2	2	6	4	7	5	2	3	2	4	8	46

2. 논문 분석 절차

1) 분석틀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46편의 논문에 대하여 Foley-Nicpon과 Lee(2012)가 상담심리 저널에서 장애연구의 20년간 내용 분석연구에 사용하였던 분석틀(연구설계, 장애영역, 연구대상, 연구방법, 결과)과 김동일, 고은영, 김이내, 박중규, 이유리, 이기정, 정소라(2009)가 국내 학습장애 연구의 동향분석연구에서 사용한 6개의 분석틀(특징, 판별 및 정의, 중재·치료, 출현율 및 역학, 생물학적 연관) 및 장애학생상담 연구 주제의 선행연구(김민형 외, 2015; 서유진, 2010; 이경현 외, 2013) 에서 사용하였던 분석틀을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다. 분석틀은 연구의 기본정보, 연구참여자, 상담영역, 연구주제, 연구방법, 자료 분석방법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2) 분석절차

본 연구는 크게 두 단계로 분석이 실시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장애학생상담지원 관련 주제를 가진 46편의 논문들이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장애학생상담지원 주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실제 상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 등을 포함하여 관련주제에 대하여 인터뷰를 실시한 질적연구 또는 수요조사를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한 논문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한 논문들이 첫 단계의 분석 대상이 되었다. 분석틀은 연구주제, 장애유형, 연구대상, 상담유형, 연구방법, 결과분석방법으로 구성하였다. 각 연구물의 핵심적인 주제를 연구주제로 나타내고, 장애유형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는 장애유형에 따라 분류하였다. 연구대상은 장애학생, 장애학생부모, 교사(일반교사, 특수교사), 상담원 또는 상담교사, 기타로 분류하였다. 연구방법은 조사연구, 실험연구, 질적연구, 양적·질적 혼합연구 4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결과분석방법은 기술통계분석과 양적분석은 상관분석, 회귀분석, 요인분석, 변량분석, t검증, 다변인 인과관계 분석, 비모수 분석, 7개로 구분되고, 질적 통계분석은 사례분석, 현상학적 분석, 근거이론적 분석, 합의적 분석, 기타분석 총 6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46편의 장애학생 상담관련 논문들의 상담주제는 1) 성과연구, 2)과정연구, 3)성과 및 과정연구, 4)상담자훈련 및 수퍼비젼 연구, 5)상담자 및 상담에 대

한 지각연구, 6)성격 및 적응연구, 7)진로 및 적성연구, 8)학업연구(김계원 외, 2011), 9)프로그램개발연구로 분류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46편의 논문들 중에 실제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연구를 실시한 논문 15편을 대상으로 상담형태, 연구설계, 상담자, 상담대상, 상담장소, 학년, 명 수, 회기 수, 시간, 기간, 독립변인, 종속변수, 자료 분석방법, 결과의 세부 분석을 실시하였다.

3. 평정자

본 연구에서 특수교육학 분야의 교수 1명과 특수교육학 전공 박사과정 연구원 1명과 석사과정 연구원 1명이 학회지 게재 논문 평정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은 특수교육관련 자격증 또는 상담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연구동향연구 지도 경험이 있거나, 장애학생 지도 및 상담경험이 있는 자들이다. 분석 대상 논문 선정 및 분석은 분석기준에 따라 평정이 실시되었고, 박사과정 연구원이 전체 논문의 46편 중 50%이상인 26편을 분석하고, 석사과정 연구원이 나머지 20편을 분석하였으며, 분석된 논문을 특수교육전공 교수 1명이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일치하지 않는 논문들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았다. 분석자간 신뢰도는 {(일치한 분석 논문 수/일치하지 않은 논문 수+일치한 논문 수)×100}이며, 그 결과 90%이상의 일치도를 보였다

III. 연구 결과

1. 연구대상 동향

장애학생상담지원에 관한 연구의 연구대상은 연구 대상 전체를 장애학생, 비장애학생, 부모, 교사, 상담원, 혼합, 기타로 구분하였다. 전체적인 결과는 〈표 2〉와 같다. 그 결과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는 12편(26.1%),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는 2편(4.3%),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는 9편(19.6%),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은 6편(13%), 상담원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은 11편(23.9%), 혼합대상은 4편(8.9%)로 분석되었다. 이는 장애학생과 상담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년도별 연구대상 동향(n=46)

연구년도 / 대상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계	%
장애학생	0	1	1	4	1	1	1	1	2	0	0	0	12	26.1
비장애학생	0	0	0	0	0	1	0	0	1	0	0	0	2	4.3
부모	0	0	0	0	1	1	1	0	0	1	1	4	9	19.6
교사	0	0	0	1	1	1	1	0	0	0	1	1	6	13
상담원	1	1	0	0	1	1	2	0	0	1	1	3	11	23.9
혼합	0	0	1	0	0	1	1	1	0	0	0	0	4	8.7
기타	0	0	0	1	0	1	0	0	0	0	0	0	2	4.3
계	1	2	2	6	4	7	6	2	3	2	3	8	46	100

1) 교사는 일반교사, 특수교사를 말함
2) 상담원은 사설 상담원, 상담교사를 말함
3) 비장애학생은 장애진단을 받지 않은 학생을 말함
4) 혼합은 교사, 부모, 실무자, 장애학생, 비장애학생 등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12편의 논문과 혼합대상자를 포함한 논문에서 장애를 가진 대상자의 장애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은 한 연구에서 장애유형이 다른 학생이 있을 경우 각각의 장애로 따로 분류되었다. 청각장애와 정서행동장애가 각각 4편(23.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지적장애가 3편(17.6%), 시각장애 2편(11.8%), 지체장애 2편(11.8%), 의사소통장애 1편(5.9%), 학습장애 1편(5.9%) 순서로 나타났다.

〈표 3〉 장애유형 동향(n=17)

장애유형	총계	%
시각장애	2	11.8
청각장애	4	23.5
지적장애	3	17.6
지체장애	2	11.8
정서행동장애	4	23.5
자폐성장애	0	0
의사소통장애	1	5.9
학습장애	1	5.9
건강장애	0	0
발달지체	0	0
기타	0	0
총계	17	100.0

또한 장애학생들의 학년동향을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논문이 4편(26.7%)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생, 대학생, 혼합학년대상으로 실시된 논문이 각각 3편(20%)이다. 중등이 2편(13.3%)이었으며, 다른 학년에 비해 적게 실시되었음이 나타났다.

〈표 4〉 장애학생 학년 동향(n=15)

	총계	%
유아	0	0
초등	4	26.7
중등	2	13.3
고등	3	20.0
대학생	3	20.0
혼합	3	20.0
계	15	100

2. 연구설계 및 연구 주제 동향

연구설계 동향 분석결과 조사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장애학생 상담지원에 관련한 연구의 연구설계는 조사연구를 실시한 논문이 16편(.5.6%)로 가장 많았으며, 질적연구 11편(24.4%), 실험연구 10편(20%), 혼합연구 7편(15.6%), 사례연구 2(4.4%) 순서로 나타났다.

〈표 5〉 연구설계 동향

	총계	%
실험연구	10	20
조사연구	16	35.6
질적연구	11	24.4
사례연구	2	4.4
혼합연구	7	15.6
	46	100

연구 주제는 김계원 외(2011)이 분류한 상담 주제를 기준으로 수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상담자 및 상담에 대한 지각연구를 주제로 하는 논문이 13편(28.3%)로 가장 많이 연구되었고, 성격 및 적응연구 9편(19.6%), 프로그램개발연구 6편(13%) 순서로 나타났으며, 학업에 관한 주제로 실시된 연구가 단 1편(2.2%)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연도별 장애학생 상담지원 관련 연구 주제 동향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총계	%
성과연구							1					2	3	6.5
과정연구	1		1			1						1	4	8.7
성과 및 과정연구					1								1	2.2
상담자훈련및 수퍼비전연구					1					1		1	3	6.5
상담자 및 상담에 대한 지각연구				1	1	1	4	1			2	3	13	28.3
성격 및 적응연구			1	2	1	1		2	1		1		9	19.6
진로 및 적성연구							1	1					2	4.3
학업연구		1											1	2.2
프로그램 개발연구				2		3			1				6	13
실태연구		1		1						1		1	4	8.7
합계	1	2	2	6	4	6	6	4	2	2	3	8	46	100

3. 장애학생 상담지원 연구의 상담프로그램 동향

1) 장애학생 상담지원 연구의 상담프로그램 실시 논문 분석 결과

46개 분석논문 중에서 15개의 논문이 실제 상담프로그램의 제공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자세한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었다. 발행년도별 분석 결과 2012년에 3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0년, 2013년, 2015년에 각각 2편, 2008년, 2017년은 각각 1편이었다. 지난 3년간 2016부터 2018년까지 실시된 연구는 1편으로 장애학생 상담지원 연구와 관련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직접 제공한 연구는 거의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의 형태는 개별상담이 2편인 것에 비하여 집단상담프로그램은 13편으로 집단상담형태의 연구가 집중적으로 실시되었음이 나타났다. 연구설계는 양적연구과 질적연구가 모두 실시된 혼합연구가 5편, 양적연구만 실시된 논문이 9편이고, 이때 단일대상연구가 3편으로 반전설계를 나타냈고, 사전·사후 결과 분석을 실시한 실험연구가 6편이었다. 질적연구는 반구조화 면답법을 사용한 논문이 1편으로 나타났다.

상담대상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9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학생 부모가 3편, 학생

및 학부모 1편, 비장애학생 1편, 장애학생 및 비장애학생 1편, 순서를 나타냈다. 장애학생의 장애유형은 정서장애가 4편이고, 이때 우울, 품행장애는 정서장애로 분류하였다. 지적장애 3편, 학습장애 1편, 청각장애1편, 시각장애 및 지체장애 1편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초등 5편, 중등 2편, 고등 3편, 중·고등 1편, 대학 1편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초등학년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상담프로그램 연구가 실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상담회기수는 10회기 이하 실시한 논문이 9편, 11~20회기를 실시한 논문이 6편으로 10회기 이하로 상담프로그램이 실시된 연구가 더 많았으며, 전체 상담프로그램은 20회기가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프로그램이 실시된 시간은 60분이하가 4편, 61~90분 이하가 4편, 91분 이상이 5편, 제시되지 않은 논문이 2편으로 분석되었다. 실시기간은 짧게는 1주에서 길게는 15주까지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4주 이하 4편, 5~10주가 8편, 11~15주 1편, 제시되지 않은 논문이 2편으로, 대부분의 연구가 5~10주 기간 동안 상담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인 상담프로그램 내용분석은 진로 및 적성연구를 실시한 논문이 2편, 성격 및 적응연구는 11편으로, 학업연구 1편, 프로그램 개발연구 1편으로 분석되어 성격 및 적응연구가 집중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 및 적응 연구의 세부 주제는 격려 또는 지지 3편, 친구관계 2편, 자기개념 1편, 문제해결 2편, 장애수용태도 2편, 도덕성 1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프로그램의 결과인 종속변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14편의 혼합연구를 포함한 양적연구에서 타당한 측정도구를 1개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개의 질적연구에서는 질적자료분석의 일반적인 절차를 제시하여 타당한 분석과정을 나타냈다. 자료분석 방법은 혼합연구의 경우 양적분석과 질적분석을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그 결과 실험연구일 경우 비모수적 방법을 사용한 논문이 2편, 공변량분석 2편, t검증 2편, t검증 및 F검증 1편, 기타2편으로 나타났으며, 단일대상연구를 실시한 3편의 논문은 빈도수, 평균 그래프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혼합연구 4편의 질적자료 분석은 내용분석을 사용하고, 1편은 귀납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15편의 논문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의 결과는 상담프로그램이 다양한 영역에서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가장 많이 연구된 영역은 사회적 영역으로 15편 중 4편의 상담을 통한 학교생활적응 향상 및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향상을 나타냈다(박영자 외, 2015; 서유진 외, 2010; 서화자 외, 2014; 이지연 외, 2009). 하지만 서유진(2010) 연구에서 연구실시 기간 동안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 증가하였지만 사후 감소한 결과와 이지연 외(2009) 연구에서 장애학생과 일반 고등학생의 친구관계의 하위변인인 긍정적 감정과 친구기능은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나 부정적 감정은 감소되지 않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상담프로그램은 장애수용태도(박은숙 외, 2015; 소은진 외, 2012), 자아존중감(박영자 외, 2015; 조은미 외, 2011)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러한 정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장애학생들은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진로를 준비하는 계획성과 타협성 영역에서 향상(김경신

외, 2013)을 나타냈다. 상담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정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행동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미친다. 15편 중 4편의 논문에서 상담프로그램이 문제행동 감소에 효과적임을 나타냈다(김연 외, 2013; 송현종 외 2008; 최빛내, 2012). 이외에도 상담프로그램은 부모양육 스트레스감소(박태경 외, 2017; 신지희 외, 2012)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나타냈었다.

〈표 7〉 장애학생 상담지원 연구의 상담프로그램 실시 논문 분석 결과

저자	상담 형태	연구설계	상담자	상담대상	상담 장소	학년/명수/회기수/시간(분)/기간(주)	독립변인 (프로그램)/이론/목적	종속변수 (측정도구)	자료분석 방법	결과
김경신 김미경 (2013)	집단	혼합연구 양적연구 단일대상, 사전·사후 질적연구	제시 안됨	지적장애학생	특수 학교	• 중등 • 3명 • 11~20회기 • 31~60분 • 6주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 Holland(1973)진로탐색이론 지적장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집단 상담실시 후 진로태도의 변화살펴봄	진로태도 (초·중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도구)	비모수적 방법 wilconxon, 내용분석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지적장애 중학생의 진로태도의 계획성과 타협성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박영자 문애경 김미옥 (2015)	집단	양적연구 실험연구 사전사후 질적연구	제시 안됨	• 우울성향 중학생 • 실험집단 11명, 통제집단 11명	대상 중학교 진로 상담실	• 중등 • 22명 • 1~10회기 • 91분 이상 • 4주	격려집단 프로그램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이론 우울성향 청소년을 대상으로 격려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심리적 안녕감,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함	우울척도점수 심리적안녕감척도점수 학교생활적응척도점수	공변량분석(ANCOVA), 내용분석	격려집단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 참가자들이 통제집단에 비해 심리적 안녕감 점수 향상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학교생활적응점수 향상
서화자 이재선 이은진 (2014)	집단	양적연구 단일대상	제시 안됨	통합학급 학습장애 학생 1명, 일반학생11명	대상 초등 학교 통합 학급	• 초등 • 12명 • 1~10회기 • 31~60분 • 5주	또래상담프로그램 미국장애인교육법(IDEA), 미국상담학회(ASCA)의 통합학급내 장애학생상담지원강조 학습장애 학생과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또래집단을 조직하여 보육시간을 활용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또래관계증진과 학급내 행동변화에 미치는 효과 확인하고자 함	또래관계 질문지점수 장애학생의 학급내 행동변화 체크리스트 점수	백분율 환산, 표와 그래프로 정리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또래관계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있음 또래프로그램이 학습장애학생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있음
박태경 박재연 (2017)	집단	양적연구 사전·사후	전문 상담사(연구자)	• 5~12세 발달장애아동부모 16명 대상 • 실험, 통제집단 각 8명	사설 발달 상담 센터	• 부모 • 16명 • 1~10회기 • 91분이상 • 8주	자기개념 명확성을 높이는 집단상담 Campbell(1996)의 자기개념 명확성 이론 집단상담을 실시하여 발달장애아동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우울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함	부모양육스트레척도(K-PSI-SF) 점수 자아존중감척도(Rosenberg Self-Esteem Inventory : RSE) 점수 한국판 CES-D점수	비모수 통계방법 분석 Wilcoxen Matched Pairs Signed-Rank Test Mann-WhitneyUTest	양육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우울 모두에서 프로그램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양육스트레스에서 높은 수준의 효과가 나타남

서유진 (2010)	개별	단일대상	연구자	정서행동장애 남학생	일반초등학교 내 교사 휴게실	• 초등 • 1명 • 11~20회기 • 61~90분 • 15주	해결중심 단기상담 Krall(1988)해결중심 상담모형 초등학교 통합교육 환경에서 정서행동장애 학생의 정서, 행동,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결중심 단기상담을 계획하여 제공하여 효과를 검증하고자함	학생의 정서적문제(한국판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K-CBCL 점수) 학생의 행동적 문제 학생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부족 문제	빈도수, 평균, 그래프제시	학생의 정서적인 문제 감소 학생의 문제행동 횟수 감소 또래와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공증가였지만 사후 감소
신지희 김광운 이숙자 (2012)	집단	양적연구 사전·사후	제시안됨	• 18세미만 지적장애, 자폐, 뇌병변장애등을 가지고 있는 아동을 둔 어머니 20명 • 실험,통제집단 각각 10명씩 임의로 할당	사설 장애아동 재활센터	• 부모 • 20명 • 1~10회기 • 91분이상 • 8주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 아들러 개인 심리학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검증하고자 함	양육스트레스 척도(QRS)점수, 자아존중감척도(Rosenberg,1965) 점수, 내외통제척도(김미란2005), 사회적 관심 척도(Social Interest Scale : SIS) 점수	공변량 분석(ANCOVA	실험집단 양육 스트레스 유의하게 감소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자기존중감과 사회적 관심에서 유의하게 향상 내적통제 및 외적통제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 나타나지 않음
조은미 천성문 이영순 (2011)	집단	양적연구 사전·사후	제시안됨	• 발달장애아동 어머니 16명 • 실험,통제집단 각각 8명	제시안됨	• 부모 • 16명 • 1~10회기 • 91분이상 • 4주	지지적 집단상담프로그램 가족체계이론 지지적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알아보고자함	사회적지지 척도(박지원,1985)점수 자아존중감 척도(장진국,1995) 심리적 안녕감 척도 점수	t검증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사회적 지지가 유의미하게 향상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향상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심리적 안녕감이 유의힘하게 향상
송현종 (2011)	개별	질적연구 반구조화면담법, 집단 심층토론 방법	전문상담사, 수화통역사	청각장애학생	온라인	• 고등 • 6명 • 1~10회기 • 61~90분 • 제시안됨	인터넷 채팅으로 진행되는 단기상담 해결 중심적 단기 상담 모형(Guterman, 2006; Sklare, 1997) 상담 사례를 통하여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수화통역 상담과 인터넷 채팅 상담 방법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알아보고자 함	장애학생 상담 경험 수화통역 상담의 가능성과 한계 인터넷 채팅 상담의 가능성과 한계	질적 자료 분석의 일반적인 절차(박태영 등 공역, 2009, pp.88-137; 천영은 역, 2008, pp. 242-297)	장애학생 상담에 긴장 부담, 안도감 나타냄 수화통역 상담의 가능성으로 수화통역사의 긍정적 기여를 타나내고 한계로서 불편감과 소외감, 역할 합의가 필요함을 나타냄 인터넷 채팅 상담의 가능성으로 구체적정보 전달 친밀감 유지등을 나타내고 한계로서 문장구력 부족등을 나타냄
김연 황혜정	집단	양적연구 사전·사후	전문상담	• ADHD 학생 5,6학년 45	제시	• 초등, 부모 • (학생45명,	ADHD 아동문제행동 치료 집단상담프로그램(아동대상,	ADHD 아동용 척도(김종운, 2002)	평균, 표준편차	ADHD 아동 문제행동 집단상담프로그램은 ADHD

(2013)			자(연구자)	명, 학부모 15명 • 실험집단 1-아동, 학부모 • 실험집단2-아동 통제집단-아동	안됨	부모15명) • 11~20회기 • 31~60분 • 6주	부모대상) ADHD 아동 행동적, 심리적 특성, 행동주의원리, 나-전달법 ADHD 아동의 문제행동을 치료할 수 있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	점수 아동 우울 척도(김현성, 1996)점수 아동의 불안 척도(RCMAS)점수 아동의 공격성 척도(이영애, 이준석, 2002)점수	산출, 변량분석, 주효과검증(집단및시기간차이),Tukey-HSD를통해사후검증실시	아동의 문제행동감소에 효과,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을 나타냄
김원호 조항 (2012)	집단	양적연구 사전·사후	전문상담자(연구자)	• 지체장애대학생 4명 • 시각장애대학생 2명	제시 안됨	• 대학 • 6명 • 1~10회기 • 91분이상 • 1주	예비 진로설계 집단상담 프로그램 Holland(1973) 진로탐색이론 장애 대학생들의 진로고민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비 진로설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함	진로결정가기효능감(CDSE-SF, 이학주번안, 2000) 진로결정수준(Career Decision Scale; CDS, 고향자 번안, 1992)	t검증	프로그램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박은숙 유형근 남순임 (2015)	집단	양적연구, 질적연구	상담심리전공특수교사	• 장애수용태도 점수가 -1 표준편차 이하 비장애 학생 • 실험, 통제각 15명	제시 안됨	• 초등(고학년) • 30명 • 11~20회기 • 제시안됨 • 6주	장애수용태도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 장애이해교육의 긍정적, 부정적영향 초등학교 고학년의 장애수용태도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하고자 함	장애수용태도 검사(정상우, 2013) 점수	혼합변량분석(Mixed ANOVA), 내용분석	집단상담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장애수용태도가 통제집단보다 유의하게 향상됨, 내용분석에서도 실험집단 참가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소은진 유형근 신효선 (2012)	집단	양적연구, 질적연구	상담심리전공특수교사	• 일반고등학교 통합학급 2개반 60명 • 1개반 임의선정하여 실험집단으로 하고, 나머지 1개 학급은 통제집단으로 배치	교양시간	• 고등 • 60명 • 11~20회기 • 61~90분 • 6주	장애수용태도 향상을 위한 공감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관한 선행연구 통합학급 고등학생의 장애수용태도 향상을 위한 공감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함	수용태도 척도 조사 설문지(Voeltz 1980, 김자경 번안재구성, 2006)	혼합변량분석(Mixed ANOVA), 내용분석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장애수용태도가 통제집단보다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용분석에서도 실험집단 참가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본 프로글매이 통합학급 고등학생의 장애수용태도 향상에 효과를 나타냄
최빛내 김남재 (2012)	집단	양적연구	치료자,(연구자)	• 보호관찰소에서 실험집단, 비교집단 실시 • 사대부속 중	제시 안됨	• 고등, 중등 • 59명 • 1~10회기 • 61~90분 • 4주	도덕성 향상 집단상담프로그램 Wilson 도덕성요소 품행장애 성향 청소년의 도덕성 향상을 ndl한 집단상담	도덕성 진단 검사(남궁달화, 2004) 점수 반사회적 행동척도(김준호, 1990) 점	t검증, F검정 일원분석	도덕성 향상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실험집단의 도덕성을 증가시키는데 효과가 있었음 도덕성 향상 집단 상담 프

				학교에서 실험집단 비교집단 실시 • 대안학교의 품행장애 성향 학생들로 통제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함	수		로그램과 다른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모두 품행장애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반사회성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었음
송현종 조성은 (2008)	집단	단일대상	상담전공 특수교사	•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지적장애아동 3명	학습도움실	• 초등 • 3명 • 11~20회기 • 31~60분 • 제시안됨	수업집중 행동 향상을 위한 해결 중심적 단기상담 Kral(1988)이 제 안한 해결 심 상담의 5단계 모형 해결 중심적 단기상담이 정신지체아동의 수업집중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	수업집중 행동과 수업 비 집중 행동 목록(김계현, 김수미, 1999) 점수	빈도수, 평균, 그래프제시	세 명의 아동 모두에서 중재의 효과가 나타남 중재효과는 중재가 끝난 후의 유지구간에서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지연 박춘희 (2009)	집단	양적연구, 질적연구	전문상담자(연구자)	• 지적장애학생3, 일반학생 6명 • 실험통제 각각 9명, 총 18명	통합환경	• 고등 • 18명 • 1~10회기 • 제시안됨 • 10주	친구관계 및 갈등해결전략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합 환경 내 집단상담 프로그램 통합교육환경의 장애학생의 또래 학생과의 상호작용 선행연구(Sawyer, Melaughin, & Winglee, 1884)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효과 분석하고자함	친구관계척도(McGill, 친구관계 질문지, 인은해,고윤주 번안, 1999) 점수 갈등해결전략척도 점수 질적자료	Fisher의 Exact Probability Test(Siegel, 1956), 귀납적 분석방법(inductive analysis)	통합환경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장애학생과 일반 고등학생의 친구관계의 하위변인인 긍정적 감정과 친구의 기능은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나 부정적 감정은 유의하게 감소되지 않음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주요결과에 대한 결론 및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학생상담지원에 관한 연구의 연구대상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상담원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 장애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이 그 뒤를 이었다. 상담이 주된 대상이 장애학생이기도 하지만 장애학생을 상담하는 상담원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상담교사의 장애학생 상담지원 실태 및 인식 연구들(김경숙, 2010; 박성현, 장우영, 황순영, 2013; 송현종, 2008)은 상담자들이 장애학생 상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았으나 실제 장애학생을 위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상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장애학생을 위한 지속적인 상담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상담교사들이 상담의 대상인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연수의 기회가 확대되어져야 필요가 있다. 한편,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에서 연구의 수가 극히 제한적이라 일반화할 수 없지만 장애유형은 청각장애와 정서장애, 지적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 등 한 장애영역에 치우쳐지지는 않고 있었다. 최근 건강장애,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의 건강과 학교 및 일상생활 적응 등에 관한 관심도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다양한 장애영역에서 상담이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학생 상담지원에 관련한 연구의 연구설계는 조사연구를 실시한 논문이 가장 많았으며, 질적연구와 실험연구가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내담자의 정서나 진로, 학업 등의 종속변인의 변화를 살펴보는 실험연구보다는 장애학생 상담의 필요성, 실태, 인식 등을 알아보는 조사연구가 현재까지는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연구주제로는 상담에 대한 지각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 장애학생과 그들의 부모와 형제, 친구 등에 관한 상담을 진행할 때, 어떤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하는지, 실제 진행상의 어려움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다양한 형태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장애학생 상담지원에 관한 실태와 인식조사가 꾸준히 진행되어져야할 것이다. 그 외. 성격 및 적응에 관한 주제와 프로그램개발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성격, 적응과 관련하여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상담사례들이 구축되어 다양한 상담방법과 상담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할 것이다(김영미, 박재국, 이선민, 2009). 또한 조사연구뿐만 아니라 상담을 통해 장애학생과 그 주변인의 생각과 정서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질적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분석결과에서 학업에 관한 주제로 실시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이는 장애학생 상담의 경우 학업보다는 사회적 관계, 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을 체감하며, 장애학생들의 상담은 장애학생이 경험할 수 있는 사회, 정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정서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송현종, 2005).

셋째, 46개 분석논문 중에서 15개의 논문이 실제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상담의 형태는 집단상담 형태의 연구가 집중적으로 실시되었고, 연구설계는 사전사후 실험연구와 단일대상연구가 시행되었다. 김기룡, 김민형, 곽승철(2015)은 실험연구가 많은 수의 장애학생을 포함시키면서 체계적인 설계방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나, 장애학생의 경우, 개별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심리사회적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개별적 상담접근이 필요한 경우도 많으므로,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이 모두 활발히 진행되고 이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학계에 다수 소개되어지고 사례들이 누적되어질 수 있어야할 것이다.

넷째, 실제 상담프로그램의 제공하여 연구를 실시한 경우, 상담대상은 초등학생이 많았으며 고등학생도 그 뒤를 이었고, 상담회기수는 10회기 이하로 실시된 연구가 더 많았으며, 상담프로그램이 실시된 시간은 60분 이하와 100분 이하 등으로 분석되었다. 실시기간은 5~10주 기간 동안 상담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민형 외(201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이들은 이러한 결과가 일반적인 상담에서 이루어지는 보편적인 회기 및 시간과 거의 비슷한 것이라고 하였다. 학령기 초기의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연구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상담의 연구주제는 많았으나, 과도기적 상태에 놓여있어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외부 환경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을 수 있는 중학부 장애학생의 상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로 나타나 이에 대한 상담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여 이들을 위한 상담지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독립변인인 상담프로그램은 성격 및 적응연구가 집중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 및 적응 연구의 세부 주제는 격려 또는 지지, 친구관계, 문제해결, 장애수용태도 등의 개인의 내면적 문제나 다양한 정서반응과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하겠다. 이렇게 다루어진 세부 주제별 상담프로그램을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통합환경에서 장애학생이 행복한 학교생활 적응을 하고, 진로를 잘 준비하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담지원에 관하여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장애학생 관련 상담프로그램의 다양한 주체를 포함하고, 두 단계에 걸친 분석을 통해 동향과 효과적인 지원영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향후 후속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논문 대상을 국내 등재지에 수록된 논문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여 국외 논문과 국내 학위논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향후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장애학생상담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학생의 가족구성원들 중에 부모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연구에서는 형제자매, 조부모를 비롯한 다른 구성들의 대상으로 한 연구를 더 포함하는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연구주제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별 연구주제를 구분하지 않았다. 때문에 장애학생상담에 관련된 주체별로 필요한 지원요구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장

애학생의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필요한 지원종류와 강도가 다를 것이며, 부모들 또한 장애종류나 경제적 배경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다를 것이다. 상담교사들을 대상으로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에 따라 학생 또는 부모대상으로 지원방향을 계획하는 것이 다를 것이며 일반학교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장애종류와 특수학교에서 가장 많이 나타내는 장애종류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교 특성을 반영한 상담의 지원방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별로 실시된 연구주제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여 주체별 지원요구에 대한 세분화 된 분석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구양미, 김영수, 노선숙, 조성민(2006).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웹기반 교수-학습 모형과 학습 환경 설계: 수학교과에서의 예시를 중심으로. **교과교육학연구, 10**(1), 209-234.

김경숙, 이상은(2016). [한국음악치료학회지] 연구 동향: 성과와 과제.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8**(2), 21-56.

김계원, 정종진, 권희영, 이윤주, 김춘경(2011). 상담심리학의 최근 연구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521-542.

김계현, 김창대, 권경인, 황매향, 이상민, 최한나, 서영석, 이윤주, 손은령, 김용태, 김봉환, 김인규, 김동민, 임은미 공저(2011). **상담과 상담학.** 상담학개론. 서울: 학지사.

김동일, 김계현, 김병석, 김봉환, 김창대, 김혜숙, 신종호(2010). **특수아동상담.** 서울: 학지사.

김병석, 김지현, 최희철, 선혜연 공역(2015). **상담이론과 실제: 다문화관점의 통합적 접근.** 서울: 학지사.

김민형, 김기룡, 곽승철(2015). 장애아 대상 상담 연구 동향 분석. **놀이치료연구, 19**(2), 97-117.

김예주, 이윤주(2012). 국내 놀이치료의 연구동향-국내학회지 게재논문(2000- 2010)을 중심으로. **한국놀이치료학회지(놀이치료연구), 15**(3), 329-343.

교육부(2018.01.04.). **e-나라지표 특수교육규모**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44

교육부(2018). **2018년도 정기국회 보고자료: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박성현, 황순영, 장우영(2013). 전문상담교사의 장애 상담 지원 실태 및 인식. **정서· 행동장애연구, 29**(4), 341-360.

송현종(2005). 학교상담: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위한 학교상담자의 준비-경도장애학생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6**(3), 933-946.

송현종(2008).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한 상담교사의 비와 역할수행 실태 분석. **상담학연구, 9**(2), 755-769

서유진(2010).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연구 방안. **특수교육학연구, 44**(4), 133-174.

성태제(2017). **교육연구방법의 이해**(4판). 서울: 학지사.

이경현, 이지연(2013). 국내 장애아 상담연구동향 분석. **열린교육연구, 21**(3), 31-52.

이선민, 박재국, 김영미(2009). 초등특수교육에 있어서의 장애아동 교육 상답 실태 및 교사의 인식. **특수아동교육연구, 11**(4), 349-370.

이주영, 김원호(2018). 특수아 상담교과 수강을 통한 상담전공 학부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 **상담학연구, 19**(3), 123-140.

Eaton, L. G., Doherty, K. L., & Widrick, R. M. (2007). A review of research and methods used to establish art therapy as an effective treatment method for traumatized children. *The Arts in Psychotherapy, 34*(3), 256-262.

Elliott, T. R., & Rath, J. F. (2012). *Rehabilitation psychology.* In E. M. Altmaier & J.C. Hansen (Eds.), The oxford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pp. 679-702).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Foley-Nicpon, M., & Lee, S. (2012). Disability research in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s: A 20-year content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9*(3), 392.

* 논문접수 2019년 5월 3일 / 1차 심사 2019년 6월 7일 / 게재승인 2019년 6월 19일

* 김희은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유아특수교육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특수교육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특수교육 전공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 E-mail: aladdin008@snu.ac.kr

* 고혜정: 부산대학교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특수교육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특수교육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위덕대학교 특수교육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hjkoh@uu.ac.kr

* 김동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동 대학원을 수료하고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교육심리학과에서 학습장애 전공으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dikimedu@snu.ac.kr

* 최수미: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및 동 대학원 심리학과 상담심리를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상담전공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건국대학교 상담심리 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sumi0727@konkuk.ac.kr

Abstract

Research Trends and Support Measures in Counselling Service for Children and Adolescent with Disabilities in Korea*

Kim, Heeeun**
Koh, Hyejung***
Kim, Dongil****
Choi, Sumi*****

We conducted an exploratory content analysi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counselling research in major journals between 2007 and 2018. The goal was to review the students with disabilities counselling literature to better understand the trend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counselling research, identify research participants, methods, topics, disability most often conducted. We searched journals using keywords derived from counselling as a major keyword and student with disability terms in counselling fields. Articles were categorized by participants, methodology, and disability category examined. We also conducted additional analysis of articles that counselling programs were provided. We found that the participant type most often conducted was elementary students, the disability types were hearing impairment,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 disability, the method was survey, the topic was the concept of counselor and counselling. We conducted by calling for increased students with disabilities research to recognize an important aspect of counseling support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within the field.

Key words: Student with disabilities, Counselling, Literature review, Family counselling, Rehabilitation, Counselor, Support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7S1A3A2066303).
** First author, Seoul National University, aladdin008@snu.ac.kr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Uiduk University, hjkoh@uu.ac.kr
****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Konkuk University